

# 현장 스님 구도역정 제주서 마당놀이로

마당극 '현장구법기', 5월 23일 한라체육관서



총연출 양기훈, 현장스님 역의 지화 스님, 소림사 방장역 성건 스님, 음악감독 문순배 지휘자

제주에서 초대형 마당극 '현장구법기'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 23일 한라체육관에 장엄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탄해 스님)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신문(대표이사 성효 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마당극 현장구법기는 시사프로 '돌하르방 어디래구수강'으로 유명한 불자 양기훈 씨가 총 각본 및 연출을 맡았다.

마당극 특성에 맞게 출연진들도 많다. 우선 주인공인 현장 스님과 손오공 등을 비롯해 200여 연합합창단, 난타팀 12여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 스님이 중국서 천축(인도)까지 법을 구하는 여정에 만난 138개국의 부족(도시)국가를 상징한 138개의 깃발을 제주도내 대덕 스님이 직접 드는 등 총 출연인원만 450여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또한 제작기간만도 3년이 넘게 걸렸다.

주최측 관계자는 "제주불교계는 이번

마당극을 통해 종단 화합을 다지는 한편 봉축을 맞아 제주불자들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고양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한 불법홍포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번 현장구법기 마당극은 역사 속 인물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불자들이 우리

450여명 출연... 제작기간 3년여

138개국 상징한 깃발들 볼거리

러보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불법을 구하려 인도까지 간 그 도전정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동북아에 전달한 개척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기획의도를 갖고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삼장 법사는 자기 일생을 걸고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중국에 갖고 오겠다고 결심을 한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삼장법사는 승려로서의



마당놀이로 펼쳐지는 '현장 구법기'에는 200여 연합합창단 등 총 450여 명이 참여한다. 리허설 장면.

계율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기의 원양(元陽)을 끝까지 지키기, 육식하지 않기, 그리고 구법의 마음을 잃지 않기 등이었다. 일견 쉬워 보이나 무지하게 어려운 고행의 나날 들임에 틀림없다. 이런 구도 역정들이 마당극의 형태로 펼쳐져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할 것 같다. 총 연출자인 양기훈 씨는 "이번 공연은 불교계의 가장 경사스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주도내 문화역량을 가진 불자들이 한데 종단을 초월해 힘을 합쳐 등장인물만 450명이 넘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이 될 것"이라며 "이는 바로 불자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씨는 "현장 스님이 당나라서 천축까지 간 과정 속에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주인공이지만 이번 마당극에서는 현장 스님을 주인공으로 했다"며 "노래, 춤, 판소리 버전의 찬불가 등 배우들의 연기가 하나로 모아져 불교가 갖는 종합예술의 묘미를 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인공 현장 역을 맡은 지화 스님(제주 흥룡사 주지)은 "역사적 사실을 공인 형태로 올리면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극 형식을 빌려 유쾌한 캐릭터들이 풍자와 해학을 펼치기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를 초월해 지역민들에게 큰 선물이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함께 충분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현장 스님이 고행에 가까운 구법의 길을 갔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138개 나라 국가를 상상해 만든 깃발은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관객들을 압도할 스케일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동 마당에서는 현장 스님이 나눠준 법신 사리를 이날 참가자들이 머리에 이고 탑돌이 하는 장면 또한 신심을 불어넣어줄 최대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 부처님 일대기 드라마로 만난다

불교TV, 드라마 '붓다' 5월 25일 오후 9시 첫 방송

부처님 일대기의 생생한 이야기를 인방극장을 통해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세계 최초로 부처님 일대기를 장편 드라마화한 '드라마 붓다'를 배급·방영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 오후 9시에 1, 2회가 연속 방송되는 '드라마 붓다'는 2014년 인도 최고 시청률상과 베스트 촬영상 수상(싱가포르, 2014) 등 다수 국가에서 수상, 호평을 받고, 인도네시아(Bali TV), 스리랑카(Derana TV), 미얀마(TV 5), 캄보디아(CBS TV), 태국(Sahamongkol TV) 등 주요 불교국가에서 인기리에 이미 방영됐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까지는 전파를 타지 못했으나 BTN불교TV를 통해 국내에는 처음으로 방송된다.

세계 최초의 부처님일대기 장편드라마인 '드라마 붓다'는 총 55부작으로 제작 준비 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충실히 구현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 세트, 의상, CG 등에 16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다.

'드라마 붓다'는 대히 모든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를 옮겨 놓은 듯이 화려하고 실감나는 화면구성과 뛰어난 연출력이 특징이며 회차 별 에피소드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성품, 지혜, 그리고 고뇌까지 느낄 수 있어 부처님(시타르타 왕자)의 생애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현지를 배경으로 인도 배우를 캐스팅 했으며, 당시 왕족의 생활모습을 복원한 것은 물론, 건물과 거리, 일반인들의 모습들까지도 모두 당시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가 부처님 일대기를 장편 드라마화한 '드라마 붓다'를 배급·방영한다.

부처님 생애 다룬 최초 드라마 제작기간 10년·비용 1600억원 장편 55부작...매주 수목 방영

'드라마 붓다'는 드라마 장르의 특성을 살려 대중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학술적 접근으로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어려움을 더하기 보다는 당시 부처님의 상황과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표현하는 것에 연출의 무게를 뒀다.

또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탄생, 출가, 깨달음, 열반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가지지 어려운 장편 드라마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BTN불교TV 역시 '드라마 붓다'의 전달력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애초 한국어 자막 대신 더빙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BTN불교TV 관계자는 "BTN의 주 시청자군을 고려하고 극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정상급의 전문 성우들이 참여하는 만큼 원작의 감동을 최대한 살려 시청자들에게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55편인 <드라마 붓다>의 역사적인 첫

방송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끈다. BTN불교TV는 부처님오신날 밤 9시, 연속 1, 2회를 파격적으로 편성하였고, 본방송은 매주 수, 목 밤 9시에 방송을 한다. 재방송은 일요일 새벽 1시, 오후 3시(각각 연속 2회)예정이며, 차주 화, 수 오전 9시에는 전주 본을 재방송하는 등 최대한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BTN불교TV는 첫 방송에 앞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먼저 5월 2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드라마 붓다' 1회 VIP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주요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드라마 붓다' 소개 및 1회를 상영한다.

또한 시청자들을 위해 5월 13일부터 홈페이지(<http://www.btn.co.kr>)를 통해서도 등장인물, 미리 보기, 매달 이벤트 등 '드라마 붓다'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BTNkorea>)나 카카오톡 채널(<http://ch.kakao.com/channels/@btntv>) 등을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법관 스님 개인전 '禪-2015'

5월 19일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법관 스님의 개인전 '禪-2015'가 5월 13일~19일에서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법관 스님의 작품세계는 색선면의 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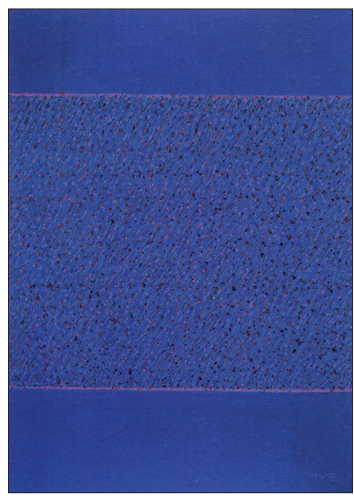
스님은 끊임없는 반복을 그림의 작화 방식에 적용시키며 수행의 여정을 이어나간다. 이는 수행자와 화가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스님만의 수행방식이기도 하다.

윤진섭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무수한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과정은 삼천

배를 하는 과정과도 같다. 때문에 화폭에 찍는 점과 긋는 선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 청색을 주조로 황색과 연한 녹색 연한 핑크색의 잔 터치들이 화폭에 펼쳐지면, 마치 한 필의 피로과도 같아 보이는 화면은 아른아른한 색의 효과를 자아낸다"고 평가한다.

법관 스님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한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를 작업의 중심에 두는 작가는 균형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찾아가는 스님은 청색조



법관 스님의 '禪-2015'

를 통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02)736-6669 정혜숙 기자

#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

접수 9월 1일~3일...작품 규격 제한 해지, 외국인 응모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자승, 운영위원장 혜일)는 2015년도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공모요강을 확정했다.

작품접수는 9월 1일~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11월 2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수상작들은 11월 25일~12월 8일 2주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부터는 작품 규격에 대한 제한을 해지

하고 작가들이 보다 다양한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응모가 가능하다.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에 따라 응모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비는 1점당 50000원이며 1인 2점까지 응모가능하다.

상금은 △대상 1500만원 △최우수상(2명) 각500만원 △우수상(3명) 각300만원 △장려상(6명) 각 100만원 등이다. (02)2011-1770 정혜숙 기자

# 국립경주박물관 분필그림 한마당 개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5월 2일 가족이 함께하는 '제3회 국립경주박물관 분필그림 한마당'을 열었다. 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로 가족들이 협동화를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06가족 386명이 참여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참가 작품 중 우수작 11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장상을 수상한 김성현 가족은 '피리를 불고 있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한가족처럼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혜숙 기자

## 대원불교미술원

###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